



“비뇨의학과” 전문과목명 변경 안내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진료과목 이미지 개선 및 진료 영역 정립을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전문과목 명칭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입법예고 및 완료되었고, 11월 14일 이와 관련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11월 2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 안은 대통령령으로서, 세부적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순차적 진행에 따라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 “비뇨의학과” 전문과목명 변경을 공표하면서,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숙지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진료 및 학술활동에서 변경된 “비뇨의학과”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회원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숙지 및 협조 요청 사항

1. “대한비뇨기과학회” 기관 명칭은 그대로 사용

2. 영문 명칭 “Urology” 그대로 사용

3. “비뇨의학과” 변경 명칭 사용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과목명을 “비뇨의학과”로 변경 사용 권장, 대내외 학술대회나 연수교육과 같은 행사시에도 “비뇨의학과”로 통일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소속명, 시행문 등)

단, 병원내 환자 진료와 관련된 의료정보시스템이나, 진단서등에 “비뇨의학과”로 표기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가능합니다.

4. 개인병원인 경우 간판명이나, 병원내 진료과목명 변경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후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간판 변경시 신설기관인 경우 의무사항이고 기존 기관은 권고사항으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 전문과목 명칭 변경 과정 안내 ※

평의원회에서 전문진료과목 명칭 변경 추진안 승인 (2016년 4월 22일)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시행 (2016년 6월 28일~7월 4일)

⇒ 투표 결과, “비뇨의학과”로 전문진료과목명 명칭 변경 결정

(총 721명 투표, 찬성 499명(69%) / 반대 222명(31%))



제 68차 정기총회 인준 (2016년 10월 14일)



대한의학회 및 대한의사협회 인준 (2017년 1월~3월)



보건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완료 (2017년 7월 14일~8월 23일)



국무회의 통과

(2017. 11. 14)



11. 21 “전문과목” 명칭 변경 공포 · 시행